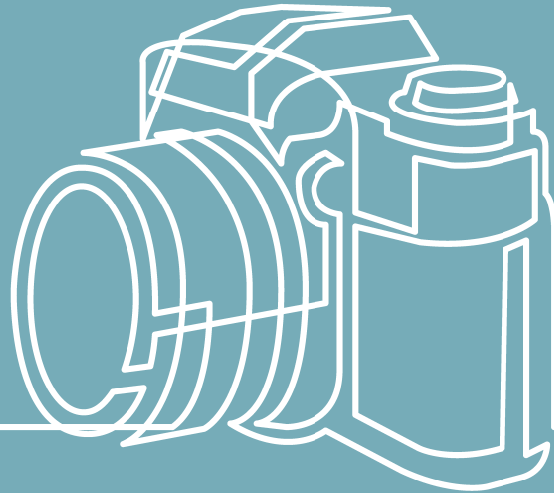


Inside of Photography - 10

조명의 활용

글. 강태욱 사진작가 / Studio Workroom K 운영



조명을 활용한 사진 촬영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사진은 빛으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빛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스튜디오에서의 촬영의 경우 조명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밝혀 이미지를 밝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닌, 조명을 활용하여 그 사진에 걸맞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명의 활용으로 좋은, 훌륭한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비단 이러한 방법은 스튜디오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야외에서도 태양 빛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빛의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애당초 빛의 근원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빛을 가장 잘 묘사한 자연스러운 조명의 사용법이 사진가에게 또 다른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태양빛의 느낌에 근접하는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제품 사진계에서는 직사광선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직사광, 확산광, 반사광으로 나눌 때는 빛의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앞서 말한 사진에 걸맞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명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의미로는 피사체를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나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에 따른 분류에는 순광, 역광, 사광, 측광, 역사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사체를 비추는 빛이 피사체의 앞뒤 좌우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입니다.

조명의 위치에 따른 분류

그림과 같이 피사체와 카메라의 방향을 기준으로 카메라 방향에서 들어가는 빛은 순광, 피사체의 뒤에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은 역광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순광에서 촬영하는 사진이 가장 밝게 나오고 그림자가 없이 깨끗하게 보이긴 하지만 평범한 느낌의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광이 많이 사용되는 사진 중의 하나가 증명사진입니다. 최근의 증명이나 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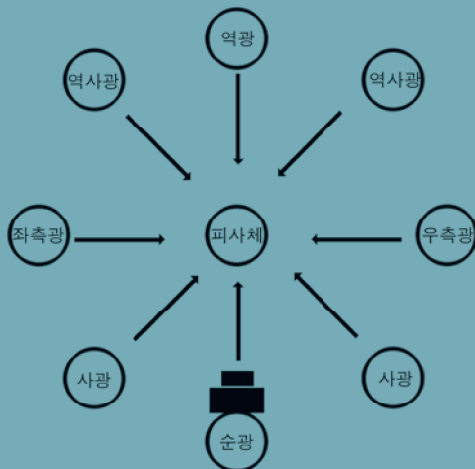


그림 1. 조명의 위치에 따른 명칭



그림 2. 역광(역사광)으로 어두운 무대 위의 연주자를 배경과 분리되어 보이게 하였다

사진은 얼굴에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광을 주 조명으로 활용하여 얼굴에 그림자나 얼룩이 없도록 반사판이나 보조광을 더하여 촬영합니다. 그러면 가장 피사체의 본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는 이른바 ‘정직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광 사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볼 수 없는 이미지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 사진만의 특별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이유는 눈과 비교해 빛의 표현력이 떨어지는 필름/수광 소자의 재현 한계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불완전한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필름/수광 소자의 다이내믹 레인지의 폭이 눈의 시신경보다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눈은 아주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까지를 한 번에 인식하여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만 인공적인 필름이나 수광소자는 밝은 곳에 기준을 두면 어두운 곳이 아예 검게 나오고, 어두운 곳에 기준을 두면 밝은 곳은 아예 하얗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최근의 35mm 풀프레임 디지털카메라나 대형 디지털 백의 경우 더 풍부한 다이내믹 레인지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우리 눈보다 못한 능력으로 인하여 표현력은 떨어집니다. 대략 인간의 눈이 22스탑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DSLR은 12스탑, 디지털 백은 15스탑 정도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오히려 더 눈길을 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할 것입니다. 육안은 포용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느낌이 잘 보이지 않지만 사진으로는 그런 빛의 방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기에 더욱 드라마틱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다른 느낌으로 제품이나 인물 촬영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역광이 주 조명일 때도 있지만 보조조명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사체의 외부 라인을 강조하게 되어 뚜렷하게 배경과 분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 3. 역광을 활용한 실루엣 사진

사광과 측광은 대상의 측면에서 비추어, 사물 표면의 요철의 그림자를 잘 보여 주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대상의 질감, 깊이감을 강조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입체감을 더욱더 부각시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깊이가 생기고 짙어지기 때문인데 이 역시 사진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광이나 측광을 많이 활용하는 데 사광보다는 측광이 더욱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 내어서 질감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제품의 질감을 나타내거나 대상의 표면을 보여 주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측광을 활용한 사진 입체감과 질감이 부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이론적일 뿐 사실 실제 촬영 시에는 이런 빛의 이름과 방향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적용하기 힘듭니다.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실제로는 파인더를 통해 대상을 보면서 조명을 여기저기로 움직이며 광량을 조절하여 가장 효과적인, 마음에 드는 곳에 위치하게 합니다. 야외에서라면 태양광을 주 조명으로 활용해서 촬영해야 하기에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거나 해가 움직여 원하는 방향에 다다르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거나 꼭두새벽부터 움직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그 사진가만의 개인적인 시각을 보여 주는 사진을 촬영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림 5. 역사광을 활용하여 모래사막의 표면을 부각시켜 보여준다

이런 빛의 방향은 스튜디오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인물 촬영에는 활용되는 조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렘브란트 라이트일 겁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자주 사용하던 조명인데 얼굴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들어 주면서 입체감을 주는 조명이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시작하여 조명을 조절하여 조명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빛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림자로 인해서 빛의 반대편 광대 쪽으로 작은 역삼각형의 밝은 부위가 생깁니다. 조명의 위치는 사광에서 들어가면서 각도를 조절하여 역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 줍니다. 중, 근세의 회화 표현에서 사진의 조명 기법이 많이 차용된 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렘브란트 라이트는 화가의 이름을 가지고 온 특징적인 조명입니다. 인물 촬영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아주 기본적인 인물 촬영 라이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입체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피부의 질감이 살아납니다. 큰 음영지역으로 인하여 얼굴이 가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하여 얼굴의 높낮이가 낮으므로 렘브란트 라이트를 이용하여 더 입체적이고 뚜렷한 인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렘브란트 라이트. 왼쪽 뺨에 역삼각형 밝은 구역이 보인다



그림 7. 렘브란트 라이트를 활용한 인물사진

렘브란트 라이트를 활용한 루프 라이트는 저 삼각형 부위를 좀 더 넓게 보여 주어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렘브란트 라이트에서 조금의 변형이 있는 조명으로 음영지역이 많이 없어집니다. 역삼각형 부위가 도드라지는지 아니면 전체 뺄이 보이는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인 인물 촬영에서 렘브란트와 루프 라이트를 활용하면 인물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여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림 8. 루프 조명을 응용한 인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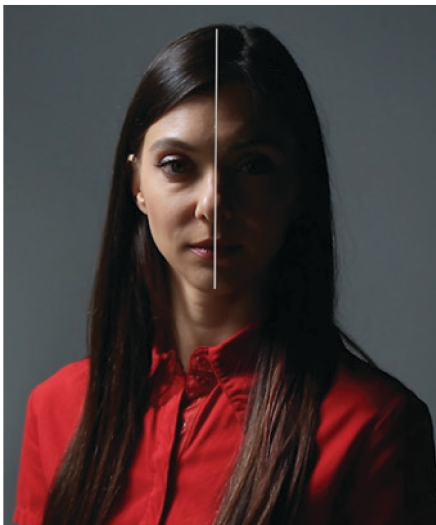


그림 9. 스플리트 라이트



그림 10. 스플리트 라이트를 활용한 인물 사진

스플리트 라이트는 인물의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얼굴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인상적이고 강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개성적인 표현의 사진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인물의 촬영이라면 활용했을 경우 극적인 효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파라마운트 라이트는 얼굴 정면 위쪽에서 조명하여 얼굴 전체를 밝혀주는 조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순광이면서 약간 상단에 위치하여 아주 기본적인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조명의 높이에 따라서 코 아래에 인종 중간까지 그림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이기어 광고 촬영, 뷰티 촬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



그림 11. 파라마운트 라이트

조명입니다. 피사체 아래쪽으로 반사판이나 보조조명을 두어서 얼굴 전체에 음영을 없애고 밝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체감이 많이 없어지고 밝은 부위가 많아서 얼굴이 둥글고 커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들어가는 조명이어서 피부의 질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잡티 등이 사라지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약간의 입체감 조절이나 잡티 조절, 눈에 비치는 캐치라이트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조명입니다.

사진 촬영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조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명이 있고, 조명용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더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빛이라도 직접 들어가는 빛과 반사되어 들어 오는 빛, 디퓨저를 통해 한번 걸러진 부드러운 빛은 모두 다른 성격의 조명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림 12. 파라마운트 라이트를 응용한 사진, 기본적인 조명보다 조금 높게 위치

조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 라이트를 이용하여 메인 라이트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 조명으로 사용하려는 조명의 특성을 알아야 지 가장 강한 빛으로 대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빛은 보조조명으로 음영을 줄이거나(반사판 등), 외곽선을 만들어 주거나(역광) 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조명의 특징을 모르면서 그저 많은 조명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그것은 그저 보여 주기, 혹은 대충 촬영하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사진에 인공조명을 활용하면서 영상 표현에서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태양광에 의지하여 보던 세상이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그 전에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응용하여 이제는 더 다채롭고 독특한, 때에 따라서는 태양 빛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진 중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사진은 많은 경우 독특한 조명의 효과에 의한 새로운 시선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공조명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사실이며, 그 조명을 활용하는 사진가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촬영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을 사용하더라도 대상의 방향을 조절하고, 반사판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부드러운 빛, 적당한 그림자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 커다란 디퓨저를 활용한다면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대상을 촬영한다면 주변에 있는 A4 용지 하나로도 반사광을 만들어 내어 음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은색의 종이를 활용한다면 더욱 짙은 음영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조명은 사진가의 처음이자 마지막 무기일 겁니다. 카메라는 보이는 것을 담을 뿐입니다. 어떠한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 것인가는 조명이 많이 좌우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